

'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' 대비 테러경보단계 "주의"로 격상

- 5.21.(목) 00:00~6.4.(목) 12:00 전국에 대해 테러경보 '주의' 발령
- 성공적인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행을 위한 테러 대비 태세 강화

- 정부는 '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'를 앞두고 선거 기간중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,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5.21(목)부터 테러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.
 - 이번 조치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유세 현장 및 후보자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차단하고, 원활한 선거 유세 및 안전한 투표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
- 이에 따라, 5.21(목) 00:00 ~ 6.4(목) 12:00 동안 선거가 진행되는 전국의 테러경보는 '관심'에서 '주의'로 한 단계 격상된다.
 - ※ '테러경보'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의 4단계로 구분
 -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,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,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.
-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, 선거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 없이 대응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 전창현 (02-2100-2032)
		담당자	사무관 김정곤 (02-2100-2044)